

2022년 8월 27-28일 주말 예배

말씀 앞에서 II + 후반기 변화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 다윗처럼 성숙한 감사로

다윗처럼 성숙한 감사로

시편 50편 23절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특권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역경 혹은 고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개 우리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 때문에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가 있어서 공부하고, 돈을 모으고, 일을 하는 것은 참을만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길을 벗어난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는 역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잔느 귀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형태로 무언가가 당신을 찾아오면, 그 즉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여라.”(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 중에서)

‘사랑하라’는 말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안하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 .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역경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역경을 통해 온다는 것을 신앙인들과 지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18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성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조건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야 말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바로 기쁨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BTD # 28 캔디의 이야기

“제가 만나교회에서 집사를 받을 때의 일입니다.”
회사에 있는데 아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에게 집사준데”
한참을 생각하다 답장을 했습니다.
“왜?”
“앞으로 당신 열심히 신앙 생활하도록. . .”
그리고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 교회에서 자신에게 집을 사주는지.
그렇게 받은 집사였고,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집을 사주셨구나. .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지나온 날들이 감사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사로 고백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씀의 뜻은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 그리고 찬양의 감격이 있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반대로 말을 한다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와 동격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옳은 길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세요.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 중의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지나온 날들과 현재의 형편,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가 충만하던 때에 감사가 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감사를 하게 되던가요? 그렇지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베풀어 준 이에게 받은 것으로 인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별이 되십니까?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 된다는 사실을”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그의 신앙고백인 시편을 통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요.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양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

믿음의 영웅 다니엘은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현재의 환경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성품이야말로 축복받을 만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감사 – 미래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성숙한 감사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바로 이러한 독특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미 받을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축사하시고”(마 14:19)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맷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으며 관용이 풍부하겠습니까?

감사의 성품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간단하게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 축복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기적을 행하시게 된 이유가 **마태복음 14장 15-16절**에 있습니다.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막막합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었고,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14장 17절**

/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면 그 도움의 손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 기적을 창조할 무엇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 거지를 보았을 때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6.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들이 은과 금은 없어도 가진 것이 있었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감사의 기적!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과 감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찮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미래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 …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한참 유행했던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머릿속에서 그리며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며 감사하십시오.

이 그림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그리는 그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유명한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은 말을 못하는 사람아니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이 어떻게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냄새가 나는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냄새나는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감사의 성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2007년 1월호 낮은 울타리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다음 칸 갑니다”

몇 달 전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탔던 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역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타더군요.

겉모습을 보아하니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시는 분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저씨는 가방 속에서 물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칫솔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혼자서 묻고 답하고 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뭐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다섯 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천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될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에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난 뒤 아저씨가 하는 말, . . .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아저씨였습니다, 나 역시 그 아저씨가 몇 개의 칫솔을 파는지 궁금한 나머지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손님들의 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죠, 은근히 많이 팔릴 것 같은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돌린 칫솔과 돈을 다 거둬들인 아저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네 4천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조용해진 지하철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조그마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당시엔 덩달아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저씨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면 으레 그 칫솔 아저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희망, . . .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아저씨의 말처럼,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감사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설천)

저는 영성이 훈련임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 역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성품이야말로 좋은 습관을 통해 훈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변화산 기간 동안에는 이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1.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존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 찬송가 429장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 했던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복을 세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그렇다면 단어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칭송”이라는 말로.

시편 118편 1절 말씀처럼.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주인이 됨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야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받은 복을 세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국무장관에 오른 인물이 콜린 파월입니다.

그는 뉴욕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그가 음료수 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백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는 일을 시키는데 흑인인 그에게는 걸레질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콜라 상자를 넘어뜨려 거품이 마룻바닥에 흥건하게 고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깨끗이 바닥을 걸레질하여 닦았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자 주인은 파월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일을 잘 하는군”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게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해에 그가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주인은 그에게 콜라 기계 앞에서 일하도록 했고, 그 다음 해에는 부감독으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을 돌보시고 있다고 믿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일한다고 합니다.

2. 감사의 일기를 쓰십시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표현된 감사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섬김은 중독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본 사람이 합니다. 감사가 표현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 집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은 가장 구체적인 감사의 일기입니다.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이 슬픔과 애통, 배신의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들이 생겨나게 되고, 감사의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감사의 일기를 적고, 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 낙심 될 때, 적어 놓았던
감사의 일기를 읽으십시오.

수년 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감사저금통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금통에 백 원, 천 원, 만 원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모으기 위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어려운 사람들을 돋는 일을 했습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되지 않는 감사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감사를 모으면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칼 메닝거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은 때때로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성 훈련”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요 훈련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염려 가운데서 기도하며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몸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되도록 감사의 근육을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물을 볼 때, 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눈으로 해석해 보세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